

베트남, 미국산 C-130 허큘리스 수송기 도입 추진

'26. 7. 15.(수), 하노이 무역관

□ 개요

- 美 국무부가 베트남에 대한 록히드 마틴社 C-130 허큘리스 운용지원(Sustainment) 패키지의 대외군사판매(FMS)를 승인했으며, 국방안보협력국(DSCA)은 이를 美 의회에 공식 통보(2026. 6. 2.)
- 베트남 공군은 현재 C-130 운용 전력이 없으며, 과거 운용했던 C-130A도 1980년대 중반 모두 퇴역한 상태
- 이러한 상황에서 운용지원 패키지가 먼저 승인된 것은 향후 중고 C-130H 또는 초기형 C-130J 도입을 전제로 한 사전 조치로 볼 수 있으며, 미국과의 항공 분야 방산 협력 확대를 시사하는 신호로 평가됨
- 계약 규모: 약 1억 달러(한화 약 1,500억 원)로 추산됨

□ 상세 내용

- 이번 사업은 미국의 대외군사판매(FMS) 방식으로 추진되는 C-130 운용지원(Sustainment) 패키지로, 향후 항공기 운용에 필요한 통합군수지원(ILS) 요소를 포함함
- 지원 범위: 엔진·프로펠러, 항공기 구성품 및 예비부품, 지상조업장비(GSE), 교육훈련 장비, 비기밀 소프트웨어 및 기술자료 등
- 기존 항공기의 단순 유지보수가 아니라 향후 C-130 도입을 대비한 운용 기반 구축 성격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음
- 베트남 공군은 현재 NC-212i 경수송기와 C295 전술수송기를 운용하고 있으나, 병력·대형 화물의 장거리 수송 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
- 향후 C-130 도입 시 병력·화물 수송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음
- 특히 원거리 도서지역 및 남중국해 전초기지에 대한 병력·물자 수송 능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

- 이번 사업은 베트남의 무기 공급망 다변화 정책과 미국-베트남 방산협력 확대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
- 베트남은 러시아산 무기체계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가운데 한국, 미국, 일본, 인도, 유럽 등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하고 있음
- 특히 2021년 미국과 비치크래프트 T-6C 텍산 II(Beechcraft Texan II) 훈련기 12대 도입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, 이번 C-130 운용지원 승인으로 미국산 항공기 운용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추세

<Vietnam International Defence Expo(VIDEX) 2024에서 전시된 C-130 수송기>
(자료원: 현지 언론)



□ 무역관 의견

- 이번 미국의 C-130 운용지원 패키지 승인 결정은 향후 베트남의 C-130 도입 가능성과 함께 미국-베트남 항공 분야 방산협력 확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
- 최근 베트남은 무기체계 도입 시 단순 장비 구매보다 교육훈련, 정비·유지보수(MRO), 기술이전 및 안정적인 통합군수지원(ILS) 체계 구축을 함께 고려하는 추세
- 유망 협력 분야: 항공기 정비·유지보수(MRO), 항공전자장비(Avionics), 예비부품 공급, 지상조업장비(GSE), 교육·훈련체계, 통합군수지원(ILS), 성능개량(Upgrade) 등

- 향후 C-130 도입이 본격화될 경우 정비·부품·성능개량 등 장기간의 운용지원 수요가 확대될 전망
- 우리 기업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해 MRO, 통합군수지원, 성능개량 및 현지 파트너십을 결합한 장기 협력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
□ 정보원 및 일자

- U.S. Department of State / '26. 6. 2.
 - 링크:
<https://www.state.gov/releases/bureau-of-political-military-affairs/2026/06/vietnam-c-130-sustainment/>
- Asian Military Review / '26. 6. 22.
 - 링크:
<https://www.asianmilitaryreview.com/2026/06/vietnam-to-get-its-hands-on-c-130-hercules-foc/>

<끝>